

남원시, 정부 예산사업 선제 대응

공모사업 검토 보고회... 3282억 규모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 논의 생활인구 거점센터·지리산 등산학교 건립, 청년 보금자리 조성 등

남원시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 모색을 위한 '2024년 공모사업 검토 보고회'를 열고 사업비 확보에 나섰다.
최근 이순택 부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 국고보조가 기존의 방식에서 자치단체간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정부 예산분석을 통

해 파악한 총 109건 총사업비 3282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내용을 토대로 초기 준비단계부터 응모단계까지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시의 주요 대응 공모사업으로는 ▲생활인구 거점센터 조성(100억원) ▲지리산 등산학교 건립(80억원) ▲운봉중심사가지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250억원)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100억원) 등이 있다. 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333억

원)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193억원) ▲청년 보금자리 조성(80억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시장 현안 해결과 성장동력 마련에 필요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상시 공모사업 발굴체계를 유지해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총 100건의 공모 선정을 통해 20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이순택 남원시 부시장은 "각 부서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타당성과 대응 논리를 보강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배움는 어린이 없도록... 고창군, 도시락 배송

4개 기관 '행복두끼' 업무협약 상반기 70명에 1만8480식 제공

고창군이 민관 협력으로 끼니를 걱정하는 결식우려 아동을 찾아 도시락 배송에 나선다.
고창군은 최근 심덕섭 군수와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 임은미 실장 및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 전문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최준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고창군과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의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에서 심덕섭(앞 왼쪽 두번째) 군수와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외식비 증가로 끼니를 걱정하는 결식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민관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4개 기관이 힘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고창군은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의 아동을 발굴하고 도시락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도시락 제조비용을 기탁했고,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락 제조 및 배송을 맡아 아이들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챙길 수 있도록 관리한다.
도시락 전달 대상은 관내 아동 70명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1만8480식을 제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결식우려 아동의 발달과 안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행복두끼 프로젝트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아동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농업 경쟁력 강화 49억 투입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개최... 38개 지원사업 확정

정읍시가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를 열고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용관 소장을 비롯해 정읍시의회의원, 농업 관련 교수, 연구기관, 농업 기관장, 농업인 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별 적격대상자 선

정을 위해 분과별로 사업목적, 사업 내용과 신청자의 영농경력, 경영 능력, 사업의 효과 등을 세밀히 검토해 올해 38개 사업, 49억원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식량작물 분야에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등 11개 사업 31억1500만원, 소득작물 분야에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

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 등 6개 사업 4억7000만원이다. 또 농촌사회분과는 지역 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등 21개 사업 13억5000만 원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했다.
센터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확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11월 종합 평가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발굴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양한 농업정책과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현장 맞춤형 영농기술 지원을 통해 사업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전북 서남권 아동보호기관 개관

정읍·김제·고창·부안 사례관리 통합 운영... 전문 상담원 등 배치



정읍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서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남권(정읍·김제·고창·부안) 4개 시·군 사례관리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거점기관이다.
개관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김용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고경운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3개 시·군(김제, 고창, 부안)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남권 아동학대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했지만, 관할지역이 넓고 사례관리 아동수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했다.
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아동보호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위탁운영법인 공모를 통해 굿네이버스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상담실, 치료실 교육장, 사무실 등 10개의 실을 갖추고 관장을 비롯해 상담원, 심리치료사 등 17명이 근무한다. 이들은 서남권지역 피해아동의 상담과 치료,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예방·홍보 활동한다.
개관식에서 이학수 정읍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로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초·중·고 5400명에 급식비 34억 지원

고창산 원재료 사용 농산물 이용 촉진... 군민 소득증대 기여

고창군이 최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지역 5400명 학생들에게 34억원의 급식경비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지원 대상학교,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살폈다.
심의회 결과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79개교의 5452명의 급식경비로 33억3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의 이 같은 급식경비 지원은 급식에 고창산 원재료를 사용해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직간접적 군민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안전지킴이 '안전보안관' 공모

이달말까지 30명... 2년간 불법 주·정차, 비상구 물건 적치 등 신고

남원시가 생활 주변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 신고하고 안전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안전보안관'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30명이다. 재난·안전 분야 단체 회원,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오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위촉일로부터 향후 2년 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 현장 안

전 규칙 미준수 등 행위 신고와 지역 안전 캠페인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및 간담회 추진도 가능해졌다. 연말에는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한 안전보안관을 선발해 표창할 계획이다.
백강규 남원시 안전재난과장은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는 안전보안관 제도 운영으로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남원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